

2024년 3월 31일(주일) 제1676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6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3월 31일(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 절기찬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성(聖)금요일 금식헌금

을 드립니다.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가브리엘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날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 제4대 목사 청빙을 위한 - 성도 대상 설문조사 시작 3월 30일(토)부터

교회는 제4대 목사 청빙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연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객관적이며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내 최대 기독교 조사연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새로 모시려는 제4대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성도 모두가 참고하며, 제4대 담임목사님을 모시는 과정에 참고하려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도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듣고 분석함으로써, 온 성도가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들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조사분석연구는 성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정량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

뷰, 정성조사) 방법을 통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전문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받게 되면, 모든 내용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개됩니다.

FGI(포커스그룹인터뷰)는 당회, 스테반회, 교구간사 그룹에서 무작위 추출된 분(6-8명)을 대상으로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전문가가 파견되어, 3월 30일(토)부터 각 그룹별로 1시간 30분 이상의 심층 인터뷰가 진행되고, 이후 권사회, 은퇴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청년, 찬양대원, 교회학교 학생 등은 각 기관을 맡은 위원장 주관으로 시행한 결과를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보내어 종합 분석 자료로 활용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 <http://www.mhdata.or.kr/>
(설문을 진행할 목회데이터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교계의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번져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봄맞이 지하주차장 물청소

스테반회(회장:임우택 안수집사)는 4월 6일(토) 오전 10시-12시까지 교회 주차장 지하 1층-3층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맛있는 점심도 대접합니다. 스테반 회원은 물론 성도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당일 주차장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치4동 어려운 이웃 도시락 봉사



권사회(회장:최종희 권사)는 대치4동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도시락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권사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긴 사순절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죄와 불의와 절망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환희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때마침 봄비에 젖은 공원의 나무들의 새순들과 전국 곳곳의 벚꽃,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어 소생하는 계절이 부활절의 의미를 더해주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도 묵은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내일의 새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를 시기하고 모함한 유대의 교권세력들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의의 편에 가담한 우매한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긴 빌라도의 어이없는 판결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구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여 우리의 신앙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1.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의 메시아성의 완결관이며 그를 통한 구원사역의 완성이며 절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인류 사회에 희망과 기쁨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죄가 왕 노릇하고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모두에게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현실이 고통과 허무로 가득하고 내일은 불안하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감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인생의 허무와 고통, 불안과 절망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이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부활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2. 부활은 의와 진리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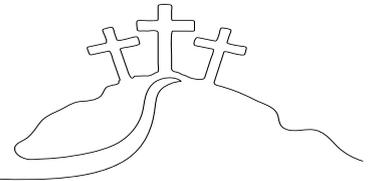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과 모든 악한 방법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군인, 관료 그리고 군중들까지 합세하였고 거짓말과 권력 남용, 무책임과 부화뇌동, 폭력과 매수 등 모든 악한 일들이 결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사회에 진실과 정의의 빛이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 그리고 모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도 생명의 복음이 승리하고 진실이 승리하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이를 이루신 부활의 주님께 경하를 드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악이 승리하고 사악한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역사의 주인 되셔서 의와 진리의 승리를 이기십니다.

3. 부활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교회의 오랜 절기 중에는 '기쁨의 50일'이 있습니다. 부활절에서 성령강림절에 이르는 기간을 기쁨의 절기로 보내는 전통입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이 우울과 불쾌함과 염려의 신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지구촌 여러 곳의 전쟁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고, 기후 이상으로 인한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예측 못할 질병들이 생겨나고, 사랑이 식어진 지구촌에는 일치와 공생보다는 각자도생이 정당한 생존 방법처럼 횡행합니다. 이런 우리 사는 세상에 예수님 부활소식은 이 모든 상처와 절망을 치유할 능력과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침울한 긴 겨울의 분위기에 매몰되지 말고 새봄의 화려함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 부활이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가 새로운 기쁨의 문화를 만들고 절대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일들이 부활신앙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다시 기원합니다.



만남의 신앙



3월 25일(월) 죄인을 만나시는 하나님(창 3:9-21)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그 증거들을 확증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처음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선악과를 먹었고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돌아가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나무 뒤에 숨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과 미래의 불안과 결국은 허무라고 하는 덧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가 파괴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피조 세계였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만큼 선한 가치를 가졌었고, 무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 창조 세계의 이런 가치 체계를 다 흔들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죄악이 난무하고 고통이 가득한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에게에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감각과 기쁨과 축제가 되어야 할 인간의 삶을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영경귀와 가시를 내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그에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지게 하실 십자가 희생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내 그녀의 죄를 가리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한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3월 26일(화) 버려진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출 3:1-12)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만나러 오시어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완벽하게 버려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족들도 정치적 동지들도 그를 버렸고, 역사도 그를 버리고 외면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비참하고 버려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세 신앙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버려지고 잊혀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환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호렙산은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거룩한 것은 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비참하게 버려진 모세 역시 거룩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후에 모세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불신과 불만을 설득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며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였지만 모세는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생각하고

자부심도 긍지도 없어서 믿음에도 삶에도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힘입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대하여 막연한 감정, 두려움, 책임의 막중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만 믿고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월 27일(수) 회개하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레 1:1-9)

하나님과 만남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바치는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십니다.(요 4:13)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1장에서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제사가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는 다양했지만 어떤 종류라도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향기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에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에 흠이 생기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많이 생기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행일치가 강조됩니다. 그런가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도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명에 흠이 있으면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대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깊이 의지하므로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제물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서 전부를 바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몸이 와야하고 마음이 와야하고 정성이 와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부분이나 조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는 불로 태워서 냄새와 연기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들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번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에 생명이 사라지고, 모든 살을 각을 뜨니 형태도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 냄새와 향기로 하나님께 바치므로 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바치기 때문에 번제든 소제든 제사는 자기 소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3월 28일(목)

어둠 속의 인생을 만나시는 하나님(요 1:1-12)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상태, 혼란과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 도덕적 부패의 상태, 죄악의 굴레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창조 전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광명이 찾아옵니다. 원래 어두움은 빛이 비추이면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보다 훨씬 더 악해서 빛이 오면 그 빛을 끄기 위해 악랄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주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려 고난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셨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원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빛이 되시기 위해서 거룩한 용

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용기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옳고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6)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옳고 선한 뜻을 위하여 거룩한 용기를 내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다가올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용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한 사람이 아닌 사회적인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빛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빛을 끄려고 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기 희생과 용기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덧입고 그 사랑을 본받아 어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과 거룩한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빛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29일(금)

십자가를 찾는 자를 만나시는 하나님

(요 19:38-42)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로마군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이어지는 혹독한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빌라도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선고 받고 갈보리 언덕 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흘리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만남의 신앙'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만남'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예수님과 만남은 내면 깊숙이 만나고 이해한다는 의미로 'encounter'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 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애절하게

호소하였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은총을 힘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 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는 여러 명의 로마군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현장을 지휘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본 후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이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와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며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며 그의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눅 7장)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은 가이사라 고넬료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인근 읍마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방인으로는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가이사라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이 되어 주님께 헌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행 10-11장)

또 다른 백부장은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향할 때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호송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풍랑이 오자 오히려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 배 안에 있던 사람을 모두 구조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행 27장)

이런 여러 백부장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모든 로마의 고관들은 구원을 얻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사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큰 변화를 갖게 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당돌하게도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 예비해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

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모두에게 변화의 은총이 내려졌습니다.

성금요일,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적으로 'encounter' 하셔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요,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성금요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조정식 은퇴장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 30:2-3)

지난 겨울을 서울에서 보내며 내 사랑 서울교회에서 꿈에도 그리던 성도들과 회포를 풀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또 새롭게 오실 목사님을 위해 온 교인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후로도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쉬임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서 돌아온 지 20일쯤 지난 3월 24일 고난주일 저녁 갑자기 제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 코에서 또 피가 치솟아 조금 겁이 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휴지로 코를 막고 피가 멈추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피가 멎은 것 같아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냈지만 화요일 새벽부터 증상이 더 심해져 그날 아침 일찍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싶더니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쉬는데 코에서 다시 피가 나오전에 치료받았던 이비인후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때가 오후 2시경으로 의사는 코와 입을 관찰하고 치료한 후 이상이 없으니,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두 번의 치료로 증상의 호전이 조금 있는

듯 싶었으나 다시 코피 양이 많아지고 헛수가 찾아져서 며느리와 아내의 권유로 차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응급실에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기자들이 많아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하니 직원들도 놀라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피하면서 의자를 내어주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접수를 마치고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비인후과 처치가 잘 되었고 증상도 호전되는듯하니 응급실에서 퇴원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코피가 치솟기 시작하니 의사가 심각성을 느끼고 다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출혈의 부위가 너무 뒷쪽이라 거즈가 닿지를 않아 먼저 처치되어 있던 거즈를 빼고 카테터를 넣어 끝쪽 풍선을 부풀려 출혈 부위를 고정하는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신경 치료방사선과가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28시간을 응급실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신경치료방사선과는 아주 특별한 분야로 혈관을 타고 두 경부 쪽을 치료하는 분야이기에 의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러 의료진들이 출혈 부위만 찾으면 괜찮으시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분이 20여 군데 병원을 연락한 지 하루 반 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상 센터가 있는 롱비치 메모리얼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에 옮겨져 저는 첫 케이스로 다음날 아침 9시에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에는 이비인후과, 신경치료방사선과, 마취과 등의 의료진이 함께 하였습니다. 코피는 코의 안쪽 아주 깊은 곳의 혈관이 터져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의 수술과 2시간의 회복으로 거의 1주일 동안 지속되었던 증상에서 드디어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해서도 시간 시간마다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의도 치 않은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도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또 한번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서울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빛을 늘 기도로 갚겠습니다.

부활절의 기도



조한나 은퇴권사
(3교구, 시인)

얼마를 더 벗어던져야
투명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겉질보다 더 단단하게
살갓보다 더 오지게 달라붙은

얼마를 더 벗어던져야
삶의 허울 버릴 수 있을까

세상은 무겁고 죽음은 어둡고
슬픔은 깊을 대로 깊은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황홀한 번개처럼 오시어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소서

잃었던 웃음을 찾게 하소서
부활의 흰꽃으로 활짝 번글게

주님만이 봄이요, 빛이요, 승리이십니다.



성도 동정



- 6교구
정신아 집사
(김세호 안수집사 부인, 고 김상철 장로·최원자 은퇴권사 자부)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식사 제공

- 8교구 조민주 성도·조범수 성도(모친 고 강애자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교회 제공

부활절 달걀 제공



- 2교구
이순례 은퇴권사
(증손녀 김도아 아기의 백일을 감사하며)

70인전도대 4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1	자원자	스데반회	4.3	도르가, 루디아, 뱌뵈
4.7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4.10	국회의원선거
4.14	자원자	바울, 엘리야	4.17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4.21	자원자	모세	4.24	리브가
4.28	자원자	이삭		

2024 전교인 4월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4월1일	월	삼상 9-12
4월2일	화	삼상 13-15
4월3일	수	삼상 16-17
4월4일	목	삼상 18-20
4월5일	금	삼상 21-24
4월6일	토	삼상 25-28
4월7일	주일	삼상 29-31

매체인 성경통독			
레4	시1,2	잠19	골2
레5	시3,4	잠20	골3
레6	시5,6	잠21	골4
레7	시7,8	잠22	살전1
레8	시9	잠23	살전2
레9	시10	잠24	살전3
레10	시11,12	잠25	살전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십자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과정이 기도와 협력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파송 선교지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군선교지를 돌보아 주소서.
3.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민의를 바르게 대변하고 나라의 향방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세계 모든 곳에 전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예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